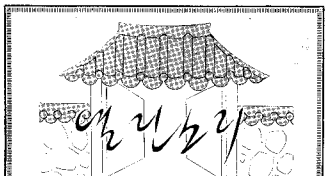


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4~6매 하이텔(ID) ; jang3
◇보내곳 : 서울·수원(본사편집실) 전리안(ID) ; joo3

원칙에 충실한 학생회되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말한다. 따라서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여 그 사회의 대표체를 구축함으로써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구성체의 권리와 안정을 도모한다. 우리는 이를 일컬어 조합 또는 연합회, 크게는 정부라고 이름 짓는다. 구성원들이 이루어 놓은 회의체는 그 나름대로의 정통성과 회칙을 갖고 있으며, 정통성을 유지하고 회칙을 준수할 때 회의체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자연대 학생회의 정통성 유지와 회칙 준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대부분의 학생회칙은 회원의 자격과 회장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본회의 회원은 자연과학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2. 회원은 학생회장 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학생자치회비 미납자는 선거원 및 피선거권이 없음)
3. 본회의 회장에 입후한 자는 회원으로서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함.
4. 자연대 학생장 유고시 임기의 1/2이 경과하였으면 대행체제로, 1/2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위의 조항 중 '자치회비 미납자에게 선거권,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조항 이외에는 학생회칙 뿐 아니라 대부분의 전국회의에서도 찾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1번과 4번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번과 4번의 경우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의 정통성을 유지키 위한 방법중의 하나다.

현재 자연대 학생회장은 제적 통고를 받은 상태이고 엄밀히 말해서 자연과학대학 학생이 아니다.

이승수 학생장이 학생회 사업에 봉사하고자 후보에 출마한 지난 10월 이승수 후보는 이미 2차례의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상태였으며, 몇 관심있는 사람들 속에서 '제적당하지 않고 학생장직 수행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현 자연대 학생회 집행부의 대부분은 '제적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였음을 기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자연대 학생회장은 제적을 당한 상태이다.

일련의 상황 속에서 자연대 학우들이 선택할 길은 무엇인가?

학교측에서는 강력한 학생회가 될 수 없고, 학우들에게는 믿음직스러운 학생회가 될수없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학생회는 학우들을 이끌어나가거나, 의견을 통일시키는 데에도 커다란 문제점을 노출시킬 것이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학생회를 건설하는 것이 현 11대 자연대 학생회의 최선의 길이다.

자연과학대학 학생회가 정상화되기를 자대학우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 성 일
〈우주 4〉

10부제 때문에 휴강한 강의

2주일전의 일이다.

교과과정 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과목의 교수님이 다음주에는 휴강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휴강하는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었다.

다음주에는 교수님의 차가 10부제 때문에 쉬는 날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얘기를 아무거림낌 없이 했다.

교통체증으로 인해 하루정도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10부제인데 … 10부제의 의미를 따지기 전에 師道를 벗어난 교수님의 행동은 허탈감마저 들게한다.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수가 아무 거림낌없이 그런 말은 한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겠는가.

만약 자가용을 가진 학생이 10부제 때문에 결석을 해야한다면 그 이유를 용납해줄 교수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 도리를 지버려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건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물론 교수님이 한번 휴강한 것이 그리 큰 사건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기본적 의무마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저버린다면 인륜을 저버리는 것과 뭐가 틀린 것일까.

김 기 환
〈전자 2〉

할딱고개 매입에 관한 의견

우리는 매일 할딱고개라 불리우는 앞으면서도 높은 고개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한다. 그러나 이 고개가 우리 학교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설사 안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필지, 학교는 왜 매입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지 모르고, 또한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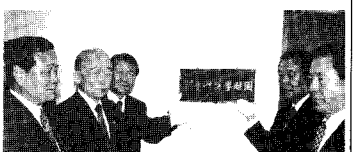
첫째, 할딱고개와 산을 기준으로 우리 배움터가 양분된다는 것이다. 할딱고개 이전의 공대, 외대, 체대의 3개 단대와 할딱고개 너머의 산대, 사대, 자대의 3개 단대로 나뉜다. 이 양분화는 서로 친밀감을 가져야 할 두 부분의 단대들 끼리 서로 이질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경관상 좋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에 처음 온 사람들, 할딱고개를 넘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공대, 외대, 체대의 3개 단대 밖에 없는 것으로 대개 생각한다.

둘째, 할딱고개가 교통상 아주 위험천만한 곳이다. 할딱고개의 오르막 부분은 급경사와 급커브 때문에 버나 눈이 오면 차가 미끄러질 소지가 높다. 특히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스키장을 연상케 하며 차타고 고개를 넘어갈 생각을 아예 포기해야한다. 그리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응달이기 때문에 한번 얼음이 얼면 녹을 때까지는 며칠씩 소요된다. 단적인 예로, 셔틀버스와 교직원 통근버스가 눈만 오면 운행을 중단한다. 셔틀버스에 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연대학우들과 그나마 덜 의존하고 있는 산대, 사대학우들은 이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도서관 공사자재를 싣고 다니는 트럭이 전복되거나, 학생회관 식당에 배달할 음료수, 과자, 쌀, 부식 등을 싣고 가던 트럭과 철판 수리하러 왔던 한국흑판차량의 물건이 쏟아져 내리는 사고현장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로인한 금전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내고 있다. 할딱고개의 길이 인도가 없는 편도 1차선인데다 할딱고개로 올라가서 산대로 꺾어지는 부분 또한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다. 90도로 꺾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불록 거울을 설치했다하더라도 산대로 넘어가는 쪽과 산대에서 넘어오는 쪽에서 동시에 차가 올 경우 접촉사고의 위험이 높다. 특히 셔틀버스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반경이 크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통과할 경우 양방향의 통행이 잠시 마비가 될 수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안고 있다.

할딱고개 열산은 우리에게 개발이 절실이 요구되는 곳이다. 이 산을 개발하여 적절한 건물을 짓고, 휴식공간을 지는다면 첫째에서 지적한 양분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 또 이 산은 음침하여 그속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려는 이도 없다. 가끔 산대 이면 학과에서 축제때 주점을 차리는 일 외에는 방치되는 곳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학교에서 땅을 매입하는 길 밖에 없다. 학교내 부지중 학교 소유가 아닌 땅이 있다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일 뿐더러 외부인에게는 웃음 거리 밖에 안되는 일이다. 50만평의 넓은 학교에서 도서관 가는 길이, 학생회관 가는 길이 힘들지 않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97년도 대학평가를 대비해서라도 학교당국은 지금이라도 부지 매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 일 복
〈수원총학 기획2부〉

회갑잔치 비용을 장학금으로



인터뷰 청산 장학재단 설립

완전한 사회인 육성할 터

윤종근 동문

지난 27일 청산 장학재단을 설립한 윤종근 법대 동문회장(법학과 6회졸업)을 만나 보았다.

윤씨는 공영일 총장등 학교 관계자와 동문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산재단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윤씨는 "소감이라고 할것은 없고 단지 내평생 학교를 위해 하고 싶었던 일을 했다는 것이 기쁠 뿐이다"라고 말했다.

윤종근 동문회장은 지난 26일 회갑을 맞아 그동안 모은 돈과 회갑잔치 비용등 3억원을 모교에 기부했다.

이 금액은 장학금이나 교수연구비로 쓰여지며 선발기준으로는

"법대학생중에서 학업성적 뿐만아니라 성실, 정직하고 부지런하면서도 집안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하며 교수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뽑을 것이라고

또한 "많은 수에게 지원하기보다 적은 수라도 끝까지 투자를 할 것"이라며 "학비 전액면제와 필요하다면 유학까지 보내 하나의 완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이끌 생각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회갑때 딸이 사다준 케이크 한 조각 먹은 기억밖에 없지만 오히려 즐겁고 의미있는 회갑잔치라 좋다"며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애교심을 갖고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심지현 기자〉

공대학생회 "폭리다" 교내 '경희서점' 서점 "결코비싸지않다"

공대학생회의 입장

개강과 더불어 교재구입을 위하여 우리 공대학우들은 구내서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구내서점이란 이유만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같이 보였고 또한 최소한의 이익만을 취할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많은 학우들이 동감하겠지만 이런 학우들의 소박한 꿈을 구내서점은 독점운영과 15년운영의 노하우로 무시하고 있다.

만약 구내에 또다른 경쟁서점이 있다면 이런 관행이 되풀이 되었을까?

예를 들어보면 'signal and system'이 구내서점에서는 3천5백원, 영풍문고에서는 2천5백원이었다. 또한 원서를 많이 보는 공대생중에 교내 서점에서 구입한 책에 수입가격이 붙어있거나, 출판된 날짜가 격혈있는 것을 구입해본 적이 거의 없을 것이다. 원서 가격이 워낙 비싸서 2만원짜리를 제본하면 7천원에서 7천5백원정도의 비용으로 훨씬 인쇄질도 선명하고 눈의 피로도 줄여주는 책을 만들수 있는 상황에서 책을 대량구매하여 학우들에게 파는 구내서점이 일반서점과 같거나 오히려 더 비싸게 파는 이유는 어찌된 일인가?

계약서상에 나타난 염가에 학생들에게 판다고 서명한 부분과 휴게실을 갖추고 책을 마음대로 열람할수있게 하겠다던 약속은 어디있는가?

이제부터 서점은 학우들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이익만을 취해야 할 것이며 교재가 비싸 구내서점에 등을 돌리는 학우들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정 훈
〈공대학생회장〉

경희가족 여러분께

먼저 구내 서점을 이용해 주시는 재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세월속에 학교발전에 다소나마 힘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과 학생여러분의 면학분위기에 발맞추고자 노력도 조금은 했다고 자부합니다. 구내서점에서 판매된 교재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다소 있을수 있겠지요. 각 출판사에서 판매단가에 대한 금액은 구내서점에서도 어쩔수가 없다는 점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94년도와 95년도의 판매금액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내서점에서도 재고서적에 대한 금액은 그대로 판매를 했습니다. 수입원서에 대한 판매금액에 대해 구내서점에서도 각 출판사에 많은 항의를 했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대형서점 및 전국 대학서점과 수입원서 가격에 대한 차이점은 전혀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 복사제본에 대한 금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많은 제약을 받은 규정이 있다는 점도 학생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줄 믿습니다. 국내 복사한 원서에 대한 각 출판사간의 가격 차이점이 있다는 점 구내서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각 출판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학생여러분의 도서 구입에 다소나마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입하신 교재에 대한 가격차이점이 타서점과 조금이나마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구내서점에 언제든지 방문해 주십시오.

학생여러분과 구내서점간에 더 한층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관 범
〈구내서점운영자〉

朔風

무역선진국이 복지후진국(?)

컴퓨터 통신의 뉴스방에 들어가보자.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를 자랑한다는 조선일보의 번호를 누르고 77번을 누르면 9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기사를 검색할 수 있다.

이제 검색키를 누르자 '비관'.

총 60건의 기사가 검색될 것이고, 그 중 '비관세'의 비관으로 나온 것들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비관자살한 사람들의 기사만을 모아보자.

우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도에 따른 비관자살은 4건이다. 그 중에 한명은 두아들, 부인과 함께 동반자살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에 대한 비관자살은 13건이고, 취업에 실패해 자살하거나 자살하려 주인집 LPG호스를 잘라 불을 낸 대학생, 대학원생은 3명이다.

그외에도 몇몇 자살한 사람이 더 있으나 실연 등으로 인한 자살은 제외하자.

자 이제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로 비관자살한 건수가 석달간 20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가족 4명이 동반자살하기도 했으니 사망자의 수는 20명이 넘는다.

또 비록 검색은 하지 않았으나 사고를 당해 생계능력이 없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시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고향땅에 버렸다는 기사도 기억을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복지수준이라고 하면 심한 말이 될 것인가.

정부는 96년 OECD가입을 계기로 후발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규모를 현재 GNP의 0.06%(1억8천만달러)에서 선진국 수준인 0.3%까지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9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교역규모 세계 12위의 준 선진국(?)으로 그만한 국제적인 공헌을 하겠다는 것이다.

좋은 말이다.

남을 도울 수 있다면, 더욱이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역량이 향상되어 국격선이 외국에서 피격을 받아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죽어도 한마디 못하는 그런 나라를 벗어난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고, 선과 후가 있는 것이다.

교역규모 세계 12위의 뒷면에는 복지수준 세계 122위라는 낯 뜨거운 현실이 있다. 곧 국민들의 피와 땀을 짜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쓰러진 그 위에 세운 교역규모를 세계 12위라는 얘기다.

미국처럼 마약이나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이 아니다. 사랑 타령하는 자살도 아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고 쌓인 빚을 걱정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식을 죽이고 동반자살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후발개도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사회 안에 있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장애인, 노약자, 여성도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선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 가족은 제대로 부양을 못하면서 다른집 식구들을 먹여살린다면 그 가장은 웃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 많은 말로 금치산자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그집 가훈이 '세계화'라면…

그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앞에둔 우리나라의 현주소이다.

여의도 모 방송국 옥상에 '2천년 앞으로 1천7백여일'이라고 표시하는 광고판이 있다.

급하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2천년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나라가 교역량 만큼 복지수준에 있어서도 열손가락 안에 든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가르쳐주고 싶을 뿐이다.

〈落兒〉